

## “완성차지부 5.31 총파업 조직 역할 해야”

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아차 광주지회 현장순회 ... “5.31 금속 선도 파업, 7월 중순 민주노총 총파업”

금속노조가 5.31.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43주년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인 5월 18일 광주를 찾았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와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에서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광주전남지부 교섭위원들을 만나 총파업 조직화를 당부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탄압이 건설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반으로 확장하는 상황이다” 라면서 “한 축으로 광폭한 노동탄압과 노조말살 정책을 펼치고, 한 축으로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 추진 등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5월 31일 금속노조가 선도 파업을 벌이고, 7월 보



진, 건설,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2주에 걸친 파상 파업이 올해 가장 주요한 투쟁이다” 라며 “7월 파업을 힘차게 전개하고, 하반기 전체 민중이 함께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라며 투쟁 구상을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 사업장 동지

들이 파업 조직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완성차지부가 노조 방침에 따라 파업투쟁에 함께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오상록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수석부지회장은 “5.18광주민중항쟁 정신 잊지 말고, 5.31 금속노조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해 윤석열 정부 끝장낼 수 있는 투쟁을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대위아 광주공장으로 이동해 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현장순회를

벌였다. 윤 위원장은 현장순회에 이은 지회 간담회에서 문동진 지회장, 박선수 현대모비스광주지회장 등과 자동차 부품사 현황과 자동차산업 전망, 노사 교섭 전략 변화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노조는 26일까지 전국에서 5.31 총파업 조직을 최대한 독려한다.

# 더 아래로 · 더 왼쪽으로, 이주 · 정주노동자 함께 싸운다

[사람과 현장] 21년 역사의 신규 지회,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 2편

※ 금속노조통신 112호 1편에서 계속.

차민다 부지회장은 “금속노조 조끼의 의미는 ‘단결’ 이고 ‘투쟁’ 이라 생각한다” 라면서 “성서공단 지회가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할 수 있는 단결과 투쟁의 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활동 의의를 밝혔다.

## 이주 · 정주노동자 단결과 투쟁의 길 만든다

김희정 지회장은 “세 개 사업장 중 한 개 사업장은 지부 승인을 거쳐 모든 노동자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했다. 나머지 두 개 사업장도 9,710원으로 교섭하고 있다” 라며 “올 하반기 중앙교섭으로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금속 가입해서 금속 최저임금 받자’ 라는 내용으로 조직화 사업을 하려 한다” 라고 덧붙였다.

성서공단 몇몇 사업장에 금속노조가 생기자 ‘사업장 쪼개기’ 가 유행처럼 번졌다. 김희정 지회장은 “20년 전 1,300개 사업장에 5만 노동자였다면, 현재 3,200개 사업장에 5만 노동자다. 사업장 숫자만 큰 폭으로 증가했다” 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장에 노조를 설립하기 너무 어렵다” 라고 탄식했다.

지회는 최근 정주조합원 1명을 포함해 16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투쟁을 통해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과 이주노동자 · 정주노동자 동일 상여금 쟁취 등 성과를 달성했다. 차민다 부지회장은 “투쟁하면서 투쟁 방식, 경찰하고 싸우는 방법, 회사 관리자들은 어떻게 상대하는지 등 많은 일을 배웠다” 라고 회상했다.

김희정 지회장은 “조합원이 한 명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맺는 경우를 금속은 처음 봤을 거다. 여기 성서가 그렇다” 라면서 “지금은 조합원이 한 명 또는 두세 명 있는

사업장마다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공단 협약을 맺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라고 전망했다.

김희정 지회장은 “단 한 명 조합원 사업장 단체협약 체결은 일종의 실험이었다” 라며 “어느 정도 투쟁을 지회가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준 삼아 앞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목

적의식이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투쟁은 활동가를 키워냈다. 전 공단을 돌아다니며 투쟁을 벌인 덕분에, 지회 홍보도 절로 됐다. 김희정 지회장은 “스리랑카, 베트남 조합원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찾아와 같이 집회에 함께하면서 활동가로 성장했다” 라면서 “활동가 양성, 홍보, 실험 등 여러 가지를 목표를 두고 진행한 투쟁이었다” 라고 규정했다.

성서공단지역지회가 집중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윤다혜 부장은 “정부가 2월부터 4월 말까지 벌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많은 이가 단속으로 잡혀갔다. 윤다혜 부장은 “조합원들보다 조합원 가족들이 많이 구속당했다. 한 조합원 부인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연행당했다” 라고 증언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2일 경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필리핀인 교회에 난입해, 예배 중이던 필리핀 노동자 아홉 명을 수감 채워 강제 연행했다. 차민다 부지회장은 “달성경찰서가 결국 사과하긴 했지만, 쉽게 넘어가면 안 될 문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민다 부지회장은 해당 사건이 “명백한 문화 차별이다” 라며 분노했다.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이나 ‘사람’ 이 있느냐고 묻자, 윤다혜 부장은 ‘코로나 19시기’ 를 꼽

았다. 윤다혜 부장은 “코로나 시기 예방접종 받기 힘들었던 이주노동자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다” 라며 “병원에 가면 비보험이라 너무 비싸다. 그때 노조에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인의협을 통해 예방접종도 일부 받도록 했다” 라고 답했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대경 인의협)는 지회 일상 사업 중 하나인 ‘무료 진료소’ 를 오



랜 기간 함께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다섯 명의 대경 인의협 소속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김희정 지회장은 “비자 없는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서,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와 질병 연관성을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조선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벌여야

금속노조에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차민다 부지회장은 “노동자들을 누가 분리하고 있나? 정부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나? 노동자끼리 싸우지 말고 정부와 싸워야 한다” 라며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요구를 걸고 함께 싸워야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

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지회장은 “당장 맞닥뜨리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금속노조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사람을 써야 한다” 라면서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가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을 금속노조가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불법체류자인데 왜 보호하나, 무슨 권리가 있냐, 빨리 내보내라, 세금도 안 낸다.’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오거든요. 미등록이주노동자라고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대부분 3.3%는 떼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돈 벌어서 본국으로 보내서 우리보다 부자다, 더 잘산다’ 라고 하는데 송금 한도도 있고, 한국에서 그 월급으로 생활하려면 절반 넘게 써야 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도 권리를 누리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고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속노조는 정주·이주노동자 구분 없이 같은 노동자로서 투쟁하고, 좋은 환경,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마지막 답변을 마친 윤다혜 부장 얼굴에 단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존엄 존중을 아는 이의 얼굴이었다.